

CEO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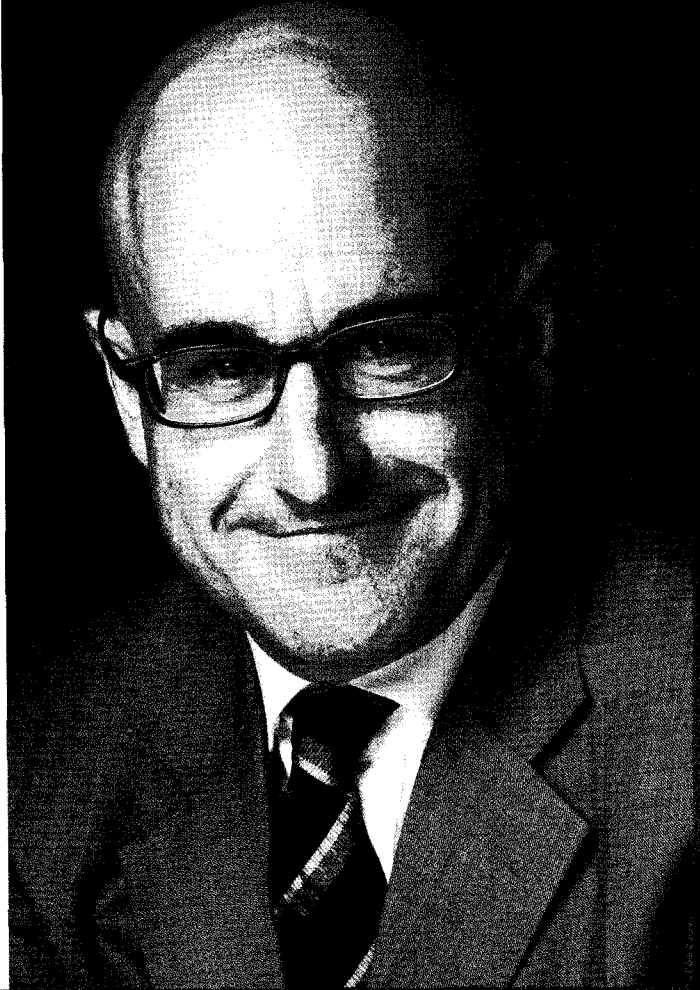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Simon Bireau |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현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에 관한 다양한 저서가 출판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광범위한 접근법과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가 가져야 할 역량을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앞에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오랜기간 거주하며 외국인 사업가로서 한국 사회를 지켜본 입장으로 보면 몇몇 방법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 중 한 가지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영어 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한국의 교육학자나 일반 대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제시된 방법이다. 영어 교육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 탓에,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영어교육을 시키려 하고 심지어 영어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일거라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의 시발점은 한국의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자녀가 가진 유창한 영어실력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나는데 충분조건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급속한 세계화 물결에서 계발해 주어야 할 자녀의 역량이 변화하였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역량은 단순히 토픽/토플 점수를 얻는 것 그 이상이다. 즉, 유창한 영어실력이 자녀들의 역량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변화가 거듭되면서 완전한 세계화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필두로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익을 창출해 왔다.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사례도 늘어가고 있



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기업들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물론 영어 경쟁력을 당연히 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각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사고방식을 표방하고, 성공적인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가 될 국제적 기술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오늘날의 한국 학생들은 과연 세계화된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은 높은 영어실력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별개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세계화된 한국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국제적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필자가 작년에 출간한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 세트」에 글로벌 비즈니스 사고방식의 실질적인 정의를 서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적 사고 및 행동방식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구상 가장 깊숙한 오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지식 기반의 세계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보다 글로벌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이러한 정의는 비즈니스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첫 단계인 취업 진출 전에,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것 외에 다른 역량을 개발하는데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유창한 영어실력과 좋은 학벌, 냉철한 분석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적 소프트 스킬'이 필수적이다. 국제적 소프트 스킬이란 외국인과 마음을 열고 우정을 쌓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국제적 에티켓과 매너를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외국의 문화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소프트 스킬은 다른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지하는 능력, 그에 따른 적응력, 포용력과 높은 상황인식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자주 초청받는 편이다. 주된 특강의 주제는 '글로벌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 혹은 '국제적

인 경력을 쌓는 것'이다. 이러한 특강을 항상 흔쾌히 하는 이유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며,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필자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특강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거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곤 한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를 자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내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한국 학생들에게 있어서 스스로를 안전지대 밖으로 내모는 것이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대학에 지원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동안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적응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고 불편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속에서 얻는 교훈들은 학생들의 인생에 적용시켜 볼 때 각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세계화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보다 가깝게 지내고 긴밀히 협동하도록 만든다. 앞으로 한국의 학생들은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과 관습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사고방식은 이러한 다른 상황, 생각, 문화와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능력과 기술은 대부분의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사설 어학원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글로벌 사고방식을 갖고, 글로벌 리더가 되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Simon Bureau는 Bishop's Univ.에서 경영학 학사, L'Ecole des Hautes Etudes Commerciales(HEC)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Montreal에 있는 Teleglobe사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워싱턴 D.C., 뉴욕, 서울 등지에서 IT 및 금융계의 여러 직책을 역임하였다. 현재 주한 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 및 Vectis사의 상무이사 겸 한국 지사장을 역임 중이다.
